맞 춤 법 안
표 준 말 안
외 래 어 표 기 법 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

1979. 12.

문 교 부

251513

차 례

〔맞춤법안〕

Ⅰ. 경위 및 개요 ····· 7

1. 개정의 필요성 ····· 7
2. 현행 맞춤법의 연혁 및 문제점 ····· 7
3. 맞춤법안 작성 과정 ····· 8
4. 맞춤법안의 특징 및 개요 ····· 10

Ⅱ. 맞춤법안 (본문) ····· 17

〔표준말안〕

Ⅰ. 경위 및 개요 ····· 49

1. 재사정의 필요성 ····· 49
2. 현행 표준말의 연혁 및 문제점 ····· 49
3. 표준말안 작성 과정 ····· 50
4. 표준말안의 개요 ····· 54

Ⅱ. 표준말안 (본문) ····· 61

〔외래어 표기법안〕

Ⅰ. 경위 및 개요 ····· 245

1. 개정의 필요성 ····· 245
2. 현행 표기법의 연혁 및 문제점 ····· 245
3. 외래어 표기법안의 작성 과정 ····· 247
4. 외래어 표기법안의 특징 및 개요 ····· 248

Ⅱ. 외래어 표기법안 (본문) ····· 25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

Ⅰ. 경위 및 개요 ····· 269

1. 개정의 필요성 ····· 269
2. 현행 표기법의 연혁과 문제점 ····· 269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의 작성 과정 ····· 270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의 특징 및 개요 ····· 271

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본문) ····· 277

맞 춤 법 안

Ⅰ. 경위 및 개요

1. 개정의 필요성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은 있었으나, 약 40년간 써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규정은 있으나 실용상 그대로 준수되지 않는 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가령, '띄어쓰기'나 '준ㅎ'의 표기 규정은 문법 이론에 맞는 규정이었으나, 실용에 어렵거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좀 쉽게 해야 한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없지 않았다.

둘째, 규정의 미비 때문에 표기법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두음 법칙의 세부 규정 미비, 접미 파생어 또는 복합어의 표기법 세부 규정 미비, 어미 '오'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이 그 예이다.

세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혀 불필요한 조문이 생겨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모음 간의 설측음 표기 규정 따위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며, 모음 'ㆍ'를 'ㅏ'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제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 것이다.

네째, 국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일부 표준어를 현실에 맞게 재사정해야 했고,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그 예를 삭제, 보완해야 하게 되었다.

2. 현행 맞춤법의 연혁 및 문제점

(1) 연　　혁

1933년 10월,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1940년 6월, 1964년 9월, 일부 개정

(2) 문 제 점

규정은 있으나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조항이 있음

띄어쓰기——먹어 보다. 하는 바이다.

준ㅎ 표기——연구ㅎ기로 등

무리하게 형태주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 어휘가 있음

반짇고리

사흗날

현재에 와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있음

· 한 형태소 안에서 모음 간의 설측음 표기 규정
· 한자음 모음의 '긔→기, ᄋᆞ→아' 등에 대한 규정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접미사처럼 쓰이는 '율(率)'이나 그 밖의 '열(列)'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자주 혼동을 일으킴.
· 어미 '오'와 조사 '요'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동의 요인이 되고 있음.

'하시오', '하시요'의 혼동

파생어나 복합어에서 뒤에 오는 말의 두음 법칙에 대한 규정이 없음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존녀비' 등의 혼동

표준어 재사정으로 인한 맞춤법 개정이 불가피함

옳다⟶올프다
맏〔昆〕⟶맏이
널따랗다⟶넓다랗다

3. 맞춤법안 작성 과정

(1) 1차 과정

1968년 10월, 대통령 각하, 알기 쉬운 표기 방법 연구 지시
1970년 2월, 국어 심의회에서 한글 맞춤법 연구 기본 계획 수립
1970년 4월, 국어 심의회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본 업무를 위촉(국내 각 어문 단체 망라)
1972년 8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개정 한글 맞춤법안 작성
1972년 11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 수정안 작성
1972년 12월, 문교부, 맞춤법 개정 초안 접수
1972년 12월~1973년 6월,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에서 동 개정안을 심의

(2) 2차 과정

당부에서는 이번 국어 어문 정책 관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법 개정안을 다시 재심에 붙이게 되어 1978년 5월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 재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상 표준어 재사정을 하는 동안 1978년 5월~8월에 국어 심의회 상임 전문 위원이 그 내용을 우선 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심의 자료를 작성하고, 1978년 10월~11월에 이를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 회의에 붙여 심의를 완료, 본문 5장 47항, 부록 9항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청회, 설문지 배포 또는 각 일간지를 통한 여론을 수집하여 국어 심의회에서 재심, 1979년 8월 31일 수정안을 발표, 다시 설문지를 통하여 여론을 들어 이 맞춤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맞춤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추진 일정, 방법 및 심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 일정

1978년 5월 1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재심 기본 계획 수립
1978년 5~8월, 국어 심의회 상임 전문 위원 개정안 내용 검토

1978년 10~11월,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 심의, 개정 시안 마련
· 본회의 : 12회
· 소위원회 : 18회
1978년 12월 15일, 개정 시안 발표
1978년 12월~1979년 7월, 지상 여론 조사
1979년 4월, 설문지 2,500부 인쇄, 배포
1979년 5월, 전국 9개 시, 도 공청회 개최
1979년 7~8월, 여론 종합 분석 및 국어 심의회 재심
1979년 8월 31일, 개정 시안의 수정안 발표
1979년 9월, 수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설문지 및 일간지)
1979년 10월, 국어 심의회 재심
1979년 11월, 맞춤법안 마련

② 심의 방법

소위원회—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여 선후 모순되는 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을 주임무로 하고, 또 본회의에서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조사, 연구 지시에 따라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냄.

본회의—소위원회에서 낸 검토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다시 개정안 전문을 축조 심의함.

③ 심의 위원 명단

위 원 장		허 웅(서울 대학교 교수)
위	원	장 하일(전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주간)
위	원	이 응백(서울 대학교 교수)
위	원	이 기문(서울 대학교 교수)
위	원	이 용주(서울 대학교 교수)
위	원	김 민수(고려 대학교 교수)
위	원	유 창균(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어문 연구실장)
위	원	이 현복(서울 대학교 교수)
위	원	홍 웅선(연세 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석득(연세 대학교 교수)
위	원	서 정범(경희 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성배(동국 대학교 교수)
위	원	이 병호(한국 교육 개발원 교과용 도서 개발 조정실장)
위	원	정 재도(소년 조선 주간)
위	원	박 용규(서울 신문 편집 부국장)
전문 위원		지 춘수, 이 주행, 전 철웅

4. 맞춤법안의 특징 및 개요

(1) 특　　징

① 현행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정신을 근간으로 하였음.

② 표준말 재사정과 함께 시대성을 반영하였음.

③ 무리하게 형태주의 원칙을 적용하려 한 ㄷ 받침 등을 바로잡았음.

ㄷ 받침을 ㅅ 받침으로 한 것(사흗날⟶사흣날)

④ 대중의 표기 경향을 일부 반영하여, 규정은 있으되 준수되지 않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고쳤음.

준ㅎ의 표기, 사이시옷의 표기 규정 등

⑤ 띄어쓰기 규정을 보강하여 실용에 편하게 하였음.

(2) 개　　요

① 전체 체제를 조정함

7장 63항⟶본문 5장 47항 부록 9항

② 형태주의적 표기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함

③ 실용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 무리하게 형태주의 원칙을 적용하려 한 ㄷ 받침을 ㅅ 받침으로 고침.

반짇고리⟶반짓고리

선달⟶섯달

숟가락⟶숫가락

㈏ 일부 기본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소리대로 적기로 함.

쇠붙이⟶쇠부치

일가붙이⟶일가부치

㈐ 띄어쓰기를 쉽게 함.

불완전 명사, 명수사, 보조 용언 등 일반 대중의 단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들은 붙여 쓰기로 하고,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성명 등도 붙여 쓰기로 함.

④ 시대성을 반영하였음

그 동안 우리말이 더러 변화하여 표준어 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맞춤법도 부분적으로 이에 맞추었음.

만[毘]⟶맏이

널따랗다⟶넓다랗다

올다⟶올프다

그 밖에, '북도두다'를 '우' 변칙 활용어로 하는 따위

⑤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

㈎ 한 낱말 안의 두 홀소리(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을 ㄹㄹ로 적는 규정

빨내⟶빨래

걸레⟶걸레

빨니⟶빨리

㈏ 접미사 '-앟(엏)다', '-업(읍)다'가 붙어서 된 말에 있어서 그 접미사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로 한 규정

놀앟다⟶노랗다

묵업다⟶무겁다

㈐ 한자음의 'ㆍ'로 달린 자음을 'ㅏ'로 적기로 한 규정

ᄀᆞ친⟶간친

ᄌᆞ녀⟶자녀

ᄋᆞ동⟶아동

㈑ 'ㅁ, ㅂ, ㅍ'을 첫소리로 한 'ㅡ'를 'ㅜ'로 적기로 한 규정

믁화⟶묵화(墨畵)

븍방⟶북방(北方)

⑥ 대중의 표기 경향의 긍정적 반응

㈎ 준ㅎ 표기의 폐지

가하다, 가ᄒᆞ다⟶가타

연구하기로, 연구ᄒᆞ기로⟶연구키로

㈏ 한 낱말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기로 함.

딱닥⟶딱딱

쌉살하다⟶쌉쌀하다

뚝닥뚝닥⟶뚝딱뚝딱

㈐ 사이시옷의 표기 범위를 축소하였음.

사이시옷은 표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어의 경우에 한하여 앞에 오는 말이 홀소리로 끝난 홀음절의 말에서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예외로 뒤에 오는 말이 'ㅑ, ㅕ, ㅛ, ㅠ, ㅣ, ㅖ'로 시작되는 말에는 앞의 말의 음절에 상관없이 표기하도록 하였음.

갯가, 댓가지, 밧줄, 촛불 등

가욋일, 나뭇잎, 도리깻열 등

Ⅱ. 맞춤법안 (본문)

일 러 두 기

이 맞춤법안 본문에 한하여 최종안의 규정에 좇아 표기하였다.

차 례

제1장 총 칙 ····· 17
제2장 낱자(자모) ····· 17
제3장 소리에 관한것 ····· 17
제1절 된소리 ····· 17
제2절 구개음화 ····· 17
제3절 'ㄷ'소리 받침 ····· 18
제4절 홀소리(모음) ····· 18
제5절 한자말의 두음법칙 ····· 19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21
제4장 형태에 관한것 ····· 21
제1절 체언과 조사 ····· 21
제2절 어간과 어미 ····· 22
제3절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것 ····· 23
제4절 불규칙용언 ····· 25
제5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26
제6절 복합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 29
제7절 준 말 ····· 32
제5장 띄어쓰기 ····· 36
제1절 조 사 ····· 36
제2절 불완전명사 및 명수사 ····· 36
제3절 보조용언 ····· 38
제4절 고유명사 ····· 39
제5절 전문용어 및 한 낱말처럼 된 말 ····· 39
제6절 수 ····· 40
부 록 ····· 40

제1장 총 칙

제1항 맞춤법은 표준말 형태소의 기본형태를 밝혀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낱자(자모)

제3항 한글 낱자의 수는 스물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윽 ㄴ 니은 ㄷ 디은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붙임**) 위의 글자로써 적을수 없는 소리는 두개 이상의 낱자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 쌍기윽 ㄸ 쌍디은 ㅃ 쌍비읍 ㅆ 쌍시읏 ㅉ 쌍지읒

ㅐ 애 ㅒ 얘 ㅔ 에 ㅖ 예 ㅘ 와 ㅙ 왜 ㅚ 외 ㅝ 워 ㅞ 웨 ㅟ 위 ㅢ 의

제3장 소리에 관한것

제1절 된 소 리

제4항 한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홀소리(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보 기 거꾸로 기쁘다 깨끗하다 부썩 소쩍새 수쩨 아끼다 어깨 어떠하다 어쩌
여쭐다 오빠 으뜸 이따금 해쓱하다

2. 'ㄴ, ㄹ, ㅁ, ㅇ' 받침 다음에서 나는 된소리

보 기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다음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소리가 아닌 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보 기 국수 딱지 색시 덥석 몹시 법석

제2절 구개음화

제5항 'ㄷ, ㅌ' 받침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지만, 'ㄷ, ㅌ'으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굳이	구지	핥이다	할치다
땀받이	땀바지	걷히다	거치다

해돋이	해도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밭이	바치		

(붙임) '맏이[昆]'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6항 아무 뜻이 없이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은 'ㅅ'으로 적는다.

보기 덧저고리 엇셈 웃어른 핫옷

뭇 옛 첫 헛

무릇 사뭇 얼핏 걸핏하면 자칫하면 엇먹다 짓밟다

(붙임) 종래에 'ㄷ, ㅌ' 받침으로 적던 다음과 같은 말들도 'ㅅ'으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반짓고리	반짇고리	잣주름	잗주름
사흣날	사흗날	풋소	풋소
삼짓날	삼짇날	잣다듬다	잗다듬다
섯달	섣달	잣다랗다	잗다랗다
숫가락	숟가락	밧사돈	밭사돈
이틋날	이튿날	밧상제	밭상제

다만, '맏-(맡, 머느리)'은 'ㄷ'으로 적는다.

제4절 홑소리(모음)

제7항 '계, 례, 메, 폐, 혜'는 종래와 같이 'ㅖ'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메(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본음을 따라 'ㅖ'로 적는다.

휴게실(休憩室) 게시판(揭示板) 게송(偈頌)

제8항 '의, 희, 늬'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늴리리	닐리리	희멀다	히멀다
늿큼	닝큼	의원(醫院)	이원
하늬바람	하니바람	주의(注意)	주이

무늬	무니	희망(希望)	히망
희다	히다	유희(遊戲)	유히

제5절 한자말의 두음법칙

제9항 '녀, 뇨, 뉴, 니'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영변(寧邊)	녕변	익명(匿名)	닉명
요소비료(尿素肥料)	뇨소비료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남녀(男女) 부녀(婦女) 분뇨(糞尿)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보기 계집녀(女)

(붙임 1) 복합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뒤에 오는 낱말이 'ㄴ'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을 따라 적는다.

보기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영업연도(營業年度)

또, 둘 이상의 낱말을 묶어 단위별로 적는 고유명사도 위의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한국여자대학 한국요소비료회사

(붙임 2) 순우리말에서 '냐, 녀, 니' 등이 첫소리로 되는 낱말이나 또는 '나, 녀, 니' 등으로 소리나는 불완전명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남남하다 남남이 냥[兩] 냥쭝[兩重]

님(바느질에서 토막진 실을 세는 말) 년 녀석 님

제10항 '랴, 려, 료, 류, 리, 례'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유행(流行)	류행
역사(歷史)	력사	이발(理髮)	리발
요리(料理)	료리	예의(禮儀)	례의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보기 어질량(良)

(붙임 1) 홑소리나 'ㄴ' 받침 다음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대열(隊列)	대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운율(韻律)	운률
자율(自律)	자률	전율(戰慄)	전률

(붙임 2) 복합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뒤에 오는 낱말이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을 따라 적는다.

보 기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제육십장(第六十章) 열역학(熱力學)
원형이정(元亨利貞)

또, 둘 이상의 낱말을 묶어 단위별로 적는 고유명사나 만 단위로 띄어 쓰는 수도 위의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보 기 서울여관 강남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붙임 3) 독립된 명사로도 쓰이는 '양, 예, 영, 율' 등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 기 강우량(降雨量) 공급량(供給量) 생산량(生產量) 수출량(輸出量)
책임량(責任量)
관결례(判決例)
상견례(相見禮) 생남례(生男禮)
대관령(大關嶺) 추풍령(秋風嶺) 후치령(厚峙嶺)
대통령령(大統領令) 시행령(施行令)
경쟁률(競爭率) 취업률(就業率) 합격률(合格率)

다만, 홑소리 및 'ㄴ' 받침 다음에 오는 '률'은 (붙임 1)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4) 다음과 같은 불완전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 기 리(里) 리(里)

제11항 '라, 로, 루, 르, 래, 뢰'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능묘(陵墓)	릉묘
노인(老人)	로인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뇌성(雷聲)	뢰성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 기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구릉(丘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보 기 다락루(樓)

(붙임) 독립된 명사로도 쓰이는 '난'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 기 가정란(家庭欄) 기입란(記入欄) 문예란(文藝欄) 비고란(備考欄)
의견란(意見欄)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2항 한 낱말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딱딱	닥닥	싹싹하다	싹삭하다
쌕쌕	쌕색	쌉쌀하다	쌉살하다
씩씩	씩식	씁쓸하다	씁슬하다
꼿꼿하다	꼿꼿하다	짭짤하다	짭잘하다
녹녹하다	능녹하다	찝찔하다	찝질하다
놀놀하다	놀롤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제4장 형태에 관한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3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보 기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곬이	곬을	곬에	곬도	곬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4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보 기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좇아	좇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늙다	늙고	늙어	늙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훑다	훑고	훑어	훑으니
옳다	옳고	옳아	옳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붙임 1) 두개의 용언이 어울러 한개의 용언이 될적에, 앞 용언의 본뜻이 분명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뜻에서 멀어진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 용언의 본뜻이 분명한것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넘어지다	너머지다	늘어나나	느러나다
닦아대다	다까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떨어뜨리다	떠러뜨리다
되짚어가다	되지퍼가다	벌어지다	버러지다
빌어먹다	비러먹다	멋들어지다	멋드러지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일어나다	이러나다
접어들다	저버들다	흘어지다	흐터지다

(2) 앞의 용언이 본뜻에서 멀어진것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사라지다	살아지다	쓰러지다	쓸어지다
다라지다	달아지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토라지다	돌아지다	드러나다	들어나다

(붙임 2) 어미 '오'는 '요'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적고, 높임의 뜻으로 덧붙이는 조사는 '요'로 적는다.

(1) 어미 '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책을 읽으시오.	책을 읽으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2) 높임의 뜻으로 덧붙이는 조사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좋지) 좋지요	좋지오
(참으리) 참으리요	참으리오
(좋아)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요	

제3절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것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서 원말에 뜻을 더하는것들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가 들어가는것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맡기다	마끼다	닫히다	다치다
웃기다	우끼다	먹히다	머키다
쫓기다	쪼끼다	잡히다	자피다
옮기다	움기다	앉히다	안치다
갈리다	갈니다	얽히다	얼키다
뚫리다	뚤리다	돋구다	도꾸다
낚이다	나끼다	솟구다	소꾸다
높이다	노피다	돋우다	도두다
먹이다	머기다	갖추다	가추다
쌓이다	싸히다	곧추다	고추다
핥이다	할치다	맞추다	마추다
굳히다	구치다	일으키다	이르키다
굽히다	구피다	돌이키다	도리키다
넓히다	널피다		

(붙임 1) 이 경우에 둘이 합하여 한 음절로 바뀐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과 ㄷ을 버린다.)

ㄱ	ㄴ	ㄷ
깨다	까이다	깨이다(까게 하다)
내다	나이다	내이다(나게 하다)
패다	파이다	패이다(파게 하다, 팔을 당하다)

(붙임 2) '이, 히, 우'가 들어가서 딴 말로 변한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도리다(칼로 ——) 드리다(응둥을 ——)
부치다(편지를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사오, 사옵, 자오, 자옵'이 들어가는것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없사오니	없아오니	있사옵고	있아옵고
있사오니	있아오니	듣자오니	듯짜오니
없사옵고	없아옵고	듣자옵고	듯짜옵고

3. '치, 뜨리'가 들어가는것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놓치다	노치다	엎치다	업치다
덮치다	덥치다	쏟뜨리다	쏟드리다

받치다(밑을 ——) 바치다 흩뜨리다 흣드리다
뻗치다 뻐치다

제4절 불규칙용언

제16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것은 벗어난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오' 또는 관형사형의 'ㄹ' 앞에서 줄어질적

보 기 놀다 : 노니 놉니다 노세 노시다 노오 놀 (때)
길다 : 기니 깁니다 — 기시다 기오 길 (때)

(붙임) 'ㄹ'이 'ㄹ, ㅈ' 앞에서 줄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말에서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그러지) 마라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자마자

2. 어간의 끝소리 'ㅅ'이 홀소리 앞에서 줄어질적

보 기 긋다 :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3. 어간의 끝소리 'ㅎ'이 'ㄴ, ㄹ, ㅁ, ㅂ'의 앞에서 줄거나 어미 '아, 어'의 앞에서 줄 때에, 어간의 끝홀소리(ㅏ, ㅑ, ㅓ)와 어미가 한 음절로 다시 줄어서 '애, 애'로 바뀔적

보 기 까맣다 :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맙니다 까매
하얗다 :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얍니다 하애
퍼렇다 : 퍼러니 퍼럴 퍼리면 퍼럽니다 퍼래

4. 어간의 끝소리 'ㅜ, ㅡ'가 '아, 어'의 앞에서 줄어질적

보 기 푸 다 : 퍼 펐다
북도두다 : 북도다 북도돴다
뜨 다 : 떠 떴다
고 프 다 : 고파 고팠다

5. 어간의 끝소리 'ㄷ'이 홀소리 앞에서 'ㄹ'로 바뀔적

보 기 듣다 :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 : 물어 물으니 물었다

6. 어간의 끝소리 'ㅂ'이 홀소리 앞에서 'ㅗ, ㅜ'로 바뀔적

보 기 돕다 : 도와 도우니 도왔다
덥다 : 더워 더우니 더웠다

7.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아래에서 '아'가 '여'로 바뀔적

보 기 하다 : 하여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의 아래에서 '어'가 '러'로 바뀔적

보 기 이르다(목적지에 ——) :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아래에 오는 '아, 어'가 '라, 러'로 바뀔적

보기 오르다 : 올라 올랐다
흐르다 : 흘러 흘렀다

제5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7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것

보기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2.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것

보기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잊음 졸음 죽음
갚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

보기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

보기 밝히 익히 작히

(붙임 1)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것이라도, 본디말의 뜻과 멀어진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기 거름(비료) 고름(膿) 굽도리 노름(도박)
다리(뎃드리는 딴 머리) 목거리(목병) 무녀리 쇠부치
일가부치 코끼리

(붙임 2)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홀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것

보기 귀머거리 까마귀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불겅이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코뚜레

(2) 부사로 바뀐것

보기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것

보기 나마 부터 조차

제18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것은 그 명사의 원형

을 밝히어 적는다.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보기 곳곳이 그릇그릇이 날날이 몫몫이 살살이
집집이 앞앞이

2. 뜻만이 바뀐것

보기 곰배팔이 네눈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붙임)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홀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뜻만이 바뀌거나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기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지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지붕 지푸라기
짜개 부랴부랴

다만, 다음 말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며칠

제19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건건이	건거니	오뚝이	오뚜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홀쭉이	홀쭈기

제20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자음)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며, 명사나 어간의 끝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이거나 'ㄴ, ㄹ, ㅁ, ㅇ'인 경우에는 각각 제4항 2의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1. 명사 아래에 닿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보기 값지다 꽃답다 빛나다 흙지다

(2) 뜻만이 바뀐것

보기 끝장 놋갓쟁이 부엌데기 옆댕이
잎사귀
눈썹 말씀 잠꼬대 공짜 끝짜기 날씨

2. 어간 아래에 닿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보기 낚시 늙정이 덮개 뜯개질
돌쩌귀 들쑥날쑥 불썽

(2) 뜻만이 바뀐것

보 기 갉작거리다[각—] 갉작갉작하다[각—각—] 굵다랗다[국—] 굵직하다[국—]
늙수그레하다[늑—] 얽죽얽죽하다[억—억—] 얽죽얽죽하다[억—억—]
넓다랗다[널따—] 넓직하다[널찍—] 얇다랗다[얄따—] 얇팍하다[얄—]
짧다랗다[짤따—] 짧막하다 깊숙하다 높다랗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밑브다 길쭉하다 멀찍하다

(붙임)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딴 말로 변한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보 기 넙치 넙적다리 넙적하다 떨떨하다 만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서뿌르다 점잖다
골탕 울무 실쭉하다 샐쭉하다

다만, 다음 말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보 기 끌막하다 굴먹하다 실컷 실큼하다 골탕 할짝거리다
할짝할짝하다

제21항 같은 어근이 거듭되어 이루어지는 시늉말의 한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시늉말	ㄱ	ㄴ
깜짝깜짝	깜짝이다	깜짜기다
번득번득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쩍번쩍	번쩍이다	번찌기다
움직움직	움직이다	움지기다
허덕허덕	허덕이다	허더기다
꾸불꾸불	꾸불이다	꾸부리다
망설망설	망설이다	망서리다
지껄지껄	지껄이다	지꺼리다

(붙임) 시늉말의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홀소리로 시작되는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 기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과리
꿀꾸리 날나리 누더기 더퍼리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딱따기 매미 무더기
미꾸라지 부스러기 뻐꾸기 살사리 삼사미
쌕쌔기 얼루기 짬짜미 칼싹두기 푸서기
간드랑간드랑

제22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보 기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꼼꼼히 꾸준히 꼼직히 답답히 비죽히

상당히 쓸쓸히 가붓이 갸웃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따뜻이 반듯이(반듯하게) 방긋이
버젓이 산뜻이 어렴풋이 의젓이 지긋이(지긋하게)

다만, '특히'는 여기에 준하여 적는다.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서 된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다른 부사가 되는 경우

보 기 더욱이 일찍이 해죽이 생긋이 쌩긋이
싱긋이

제23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것

보 기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것

보 기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턱없다
하염없다

제6절 복합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제24항 둘 이상의 말이 어울릴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변하지 아니하거나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보 기 국그릇 꺾꽂이 꽃철 맞절 밤낮
밥벌이 옷소매 값싸다 걷잡다 낮보다
낮잡다 돋보다 잇달다 국말이 밀천
밥물 젖몸살 칼날 홑몸 흙내
겁나다 겉늙다 굶주리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빛나다 엎누르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보 기 싫증[실쯩]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보 기 눈웃음 물오리 밤알 살얼음 속옷
손아귀 손위 집안 참외 친어머니
큰언니 홑아비 물오르다 속없다 철없다
값어치 꽃잎 물아래 부엌일 숫음식
웃어른 웃옷 젖어미 첫아들 팥알
홑옷 값없다 넋없다 웃오르다

(붙임)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아주 딴 소리로 변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보 기 오라비　　달걀　　할아버지　　굴병

제25항 'ㄹ' 받침이 있는 말과 딴 말이 어울릴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보 기 다달이　　따님　　마되　　마소　　무자위
바느질　　부나비　　부삽　　부손　　소나무
싸전　　여닫이　　차돌　　차조　　화살

제26항 복합명사의 두 말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것은 된소리 표시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앞의 말이 홀소리로 끝난 홀음절의 말에는 'ㅅ'을 받치어 적는다.

1. 앞말이 홀소리로 끝난 홀음절인 경우

보 기 갯가　　겟국　　겻불　　곗날　　깃대
갯국　　낫살　　냇가　　댓가지　　뒷간
뒷갈망　　뗏솔　　뗏장　　맷가마리　　맷돌
멧나물　　멧누에　　뭇자리　　밧줄　　뱃길
뱃병　　벗가리　　벚단　　빗돌(비석)　　빗물
뻣국　　샛강　　샛검불　　쇳조각　　잇몸
잇자국　　잣대(자막대기)　　잿더미　　챗바퀴　　촛불
킷값　　탯줄　　텃마당　　텃세　　팟종
팻말　　콧소리　　핏기　　핏대　　햇님
햇벌　　혓바늘　　횃대　　횟가루　　횃배(거의배)
훗간　　훗집　　붓동　　붓둑　　붓세
셋방　　셋집　　숫본　　숫실　　젯날
젯상　　찻간　　찻길　　찻방　　찻잔
찻종　　찻집　　촛병(초를 담은 병)　　찻장
촛국　　툇간　　툇도지　　툇마루　　훗날
훗번　　훗서방　　댓수(세대의 수)　　찻수(차가 난 수)
햇수　　귓병　　윗병　　콧병　　횃병

2. 앞말이 홀소리로 끝난 홑음절 이외의 경우

(1) 앞말이 닿소리로 끝난 말

보 기 갈대[—때]　　감빛[—삧]　　굴다리[—따—]　　길가[—까]　　눈가죽[—까—]
돌결[—껼]　　들도리[—또—]　　군법[—뻡]　　근수[—쑤]　　냉병[—뼝]
문간[—깐]　　찬장[—짱]　　전번[—뻔]　　여관방[—빵]　　계산법[—뻡]
백혈병[—뼝]

(2) 앞말이 두 음절 이상인 말

보 기 가운데손가락[—쏜까—]　　고드래돌[—똘]　　그저께밤[—빰]　　길마가지[—까—]
김치돌[—똘]　　나무갓[—깟]　　누에구더기[—꾸—]　　각기병[—뼝]
강제죄[—쬐]　　고유법[—뻡]　　교차점[—쩜]　　기계간[—깐]

대서방[—빵]　　세대수[—쑤]　　시내가[—까]

(3) 복합명사가 아닌 말

보 기 가점[—쩜]　　거점[—쩜]　　계수[—쑤]　　고가[—까]　　개수[—쑤]
구권[—꿘]　　구법[—뻡]　　귀격[—껵]　　기권[—꿘]　　기점[—쩜]
내과[—꽈]　　대구[—꾸]　　대권[—꿘]　　대수[—쑤]　　단가[—까]
용건[—껀]　　실격[—껵]　　농과[—꽈]　　문구[—꾸]　　중권[—꿘]
윤기[—끼]

(붙임 1) 복합어의 앞말이 홀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ㅑ, ㅕ, ㅛ, ㅠ, ㅣ, ㅖ'로 시작되는 말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앞말이 두 음절 이상이라도 'ㅅ'을 받치어 적는다.

보 기 가윗일　　깻잎　　나뭇잎　　댓잎　　도리깻열
두햇일　　뗏일　　뒷윷　　뒷일　　뒷입맛
베갯잇　　봇일　　사삿일　　예삿일　　윳잇
허드렛일　　훗일

(붙임 2) 다음과 같은 말들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아랫니　　배냇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제27항 아래와 같은 말에서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나는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ㅂ' 소리가 나는것

멥쌀(메ㅂ쌀)　　찹쌀(차ㅂ쌀)　　입쌀(이ㅂ쌀)
핍쌀(피ㅂ쌀)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나는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이팝(이ㅎ밥)　　살코기(살ㅎ고기)
안팎(안ㅎ밖)　　조팝(조ㅎ밥)

(붙임) '암, 수'와 어울리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아래 음절이 거센소리로 나는것은 거센소리로 적는다.

보 기 수캐(수ㅎ개)　　암캐(암ㅎ개)
수컷(수ㅎ것)　　암컷(암ㅎ것)
수톨쩌귀(수ㅎ돌쩌귀)　　암톨쩌귀(암ㅎ돌쩌귀)
수탉(수ㅎ닭)　　암탉(암ㅎ닭)

(2) 아래 음절이 예사소리로 나거나, 본디 된소리거나 거센소리인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수술　　암술　　수나사　　암나사
수까치　　암까치　　수꽃　　암꽃
수평　　암평　　수코끼리　　암코끼리
수토끼　　암토끼　　수사돈　　수여우

다만, 다음 말의 '수'에만 'ㅅ'을 받치어 적는다.

보 기 숫놈

제28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리어 한 낱말을 이룰적에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 기 빗나가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짓이기다　　연잇다　　엿듣다　　헛되다

제7절 준　　말

제29항 말의 끝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까마귀까치	까막까치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온가지	온갖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북도두고, 북도두지	북돋고, 북돋지

제30항 조사만이나 또는 조사와 체언이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무엇이	무에
	무엇을	무얼

제31항 홀소리 'ㅏ, ㅓ'로 끝난 줄기에 '아, 았, 어, 었'이 어울릴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원 말	준 말
가아	가았다	갔다
나아	나았다	났다
사아	사았다	샀다
자아	자았다	잤다
차아	차았다	찼다
타아	타았다	탔다
서어	서었다	섰다
켜어	켜었다	켰다
펴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밑에 '어, 었'이 어울려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개어	개었다	갰다
깨어	깨었다	깼다
내어	내었다	냈다
메어	메었다	맸다
배어	배었다	뱄다
새어	새었다	샜다
재어	재었다	쟀다
채어	채었다	챘다
캐어	캐었다	캤다
메어	메었다	뗐다
베어	베었다	벴다
세어	세었다	셌다
헤어	헤었다	헸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줄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하여	하였다	했다
흔하여	흔하였다	흔했다
더하여	더하였다	더했다

제32항 홀소리 'ㅗ, ㅜ'로 끝난 어간 밑에 '아, 았, 어, 었'이 어울려 겹홀소리 'ㅘ, ㅝ'로 될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꼬아	꼬았다	꽜다
보아	보았다	봤다
쏘아	쏘았다	쐈다
두어	두었다	뒀다
쑤어	쑤었다	쒔다
주어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한 음절로 될 때에 'ㅎ'이 떨어지고 '놔'로 줄 때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붙임 2) 'ㅚ' 밑에 '어, 었'이 어울려 겹홀소리 'ㅞ'로 될적에도 이에 준한다.

보 기	본 말	준 말
괴어	괴었다	괬다
꾀어	꾀었다	꽸다
뇌어	뇌었다	눼다
되어	되었다	됐다
뵈어	뵈었다	봬다
쇠어	쇠었다	쇘다
쐬어	쐬었다	쐤다
외어	외었다	왰다

죄어	죄었다	좨	좼다
쬐어	쬐었다	쵀	쵔다

제33항 'ㅣ' 다음에 '어'가 와서 겹홀소리 'ㅕ'로 줄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끼어	끼었다	껴	꼈다
	다니어	다니었다	다녀	다녔다
	견디어	견디었다	견뎌	견뎠다
	그리어	그리었다	그려	그렸다
	여미어	여미었다	여며	여몄다
	비비어	비비었다	비벼	비볐다
	모시어	모시었다	모셔	모셨다
	걸리어	걸리었다	걸려	걸렸다
	웃기어	웃기었다	웃겨	웃겼다
	모이어	모이었다	모여	모였다
	가지어	가지었다	가져	가졌다
	치어	치었다	쳐	쳤다
	가리키어	가리키었다	가리켜	가리켰다
	버티어	버티었다	버텨	버텼다
	살피어	살피었다	살펴	살폈다
	잡히어	잡히었다	잡혀	잡혔다
	녹이어	녹이었다	녹여	녹였다
	끓기어	끓기었다	끓겨	끓겼다

제34항 'ㅏ,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ㅚ, ㅟ, ㅢ'로 줄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말
	싸이다	쌔다
	짜이다	째다
	꼬이다	꾀다
	보이다	뵈다
	쏘이다	쐬다
	꾸이다	뀌다
	누이다	뉘다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트이다	틔다

제35항 'ㅏ, ㅕ, ㅗ, ㅜ, ㅡ' 다음에 '이어'가 어울리어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말	준말	준말
	싸이어	싸여	쌔어	쌔
	짜이어	짜여	째어	째
	펴이어	펴여	폐어	폐
	꼬이어	꼬여	꾀어	꽤
	모이어	모여	뫼어	뫠
	보이어	보여	뵈어	봬
	쏘이어	쏘여	쐬어	쐐
	꾸이어		뀌어	
	누이어		뉘어	
	뜨이어	뜨여	띄어	
	쓰이어	쓰여	씌어	
	트이어	트여	틔어	

(**붙임**) '쌓이어', '쌓여'가 'ㅎ'이 떨어지고 '쌔어', '쌔'로 줄 때도 준대로 적는다.

제36항 어미 '지' 다음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적과 '하지' 다음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적지 않은	적잖은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37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아래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가하다고	가타고
	거북하지	거북치
	간편하게	간편케
	정결하지	정결치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다만, 'ㅎ'이 위의 음절의 받침이 되어 완전히 활용되는 어간으로 굳어진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보 기				
않 다 :	않고	않지	않은	않으니
이렇다 :	이렇고	이렇지	이런	이러니(ㅎ불규칙)
그렇다 :	그렇고	그렇지	그런	그러니(ㅎ불규칙)
저렇다 :	저렇고	저렇지	저런	저러니(ㅎ불규칙)
어떻다 :	어떻고	어떻지	어떤	어떠니(ㅎ불규칙)
아무렇다 :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런	아무러니(ㅎ불규칙)

(**붙임 1**)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버릴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 기

본 말	준 말
생각하다 못하여	생각다 못하여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붙임 2)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결단코 결코 기필코 그토록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원컨대 정녕코 청컨대
필연코 하마터면 한사코 하여튼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 사

제38항 조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보 기 꽃이 꽃을 꽃에
꽃보다 꽃밖에
꽃으로부터 꽃에서만
갈도 갈은
가기도 가라는
웃고만 웃어도
어디까지나

(붙임) '이다'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보 기 이것이 꽃이다.
이것이 꽃입니다.

제2절 불완전명사 및 명수사

제39항 불완전명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보 기 보이는것이 책이다.
생각하는바가 옳다.
가는데가 어딥니까?
할수 있다.
그럴리가 있나?
떠난지가 오래다.
그런 뜻인줄 몰랐다.
할 일을 다할뿐이다.

고용살이를 할따름이다.
웃을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자못 미안한듯이 말했다.
그에게 맡긴채 상관 안 했다.
일이 소망한대로 되었다.
그를 믿었기때문이다.
모두 잊어버릴터이다.
시골티가 난다.
그무렵이 바로 3·1 운동 때다.
어떤분이 오십니까?
그 애는 내 조카뻘이 된다.
제딴에는 열심이다.
제깐에는 하노라고 한다.
사람도 사람나름이다.
아무짝에도 못 쓴다.
닷새만이다.
그중의 하나
그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자가 또 왔어.
찬성하는측도 있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들은 띄어 쓴다.

보 기 청군 대 백군
국장 겸 과장
이사장 및 이사들
열 내지 스물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부산, 마산 등지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제40항 홀로 쓰이지 못하는 명수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보 기

쌀 한가마	한개	오이 한거리	밥 한끼
한나절	돈 한냥	가마니 한닢	차 한대
섭씨 10도	금 서돈	명주 네동	오십리
소 한마리	물 한모금	대포 한문	전깃줄 한미터
새끼 한바람	짐 한바리	노끈 두발	대포 한방
옷 한벌	열살배기	석새 삼	조기 한손
시 한수	연필 한자루	백지 한장	총 한정

약 한제	저고리 한죽	사과 반쪽	집 한채
배 한척	삼층	약 한첩	한치
신 두켤레	북어 한쾌	광목 한통	돈 서푼
양단 세필	오징어 한축	1970년	3월
5일	두시	삼십분	오초
1개월	1개년	십여일	일원
오십전			

제3절 보조용언

제41항 '-아, -어, -여'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보기 잘도 놀아난다.
날이 밝아온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자꾸 먹어댄다.
책을 읽어본다.
날씨가 추워진다.
불이 꺼져간다.
그렇게 말하여주었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다만, '-아, -어, -여' 다음에 조사가 붙으면 조사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보기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불이 꺼져는 가지만…….

제42항 관형사형, 의문형, 명사형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보기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잘난체한다.
죽을뻔하였다.
좋은가보다.
사람인가싶다.
있음직하다.

다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적에는 다음에 오는 말을 띄어 쓴다.

보기 비가 올듯은 하다.
잘난체를 한다.
있음직도 하다.

제4절 고유명사

제43항 성명은 붙여 쓰고, 성명과 성에 딸린 말들은 띄어 쓴다.

보기 박동혁 씨
최치원 선생님 귀하
김 씨
김 가
이 군

다만, 복성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보기 황보 인
남궁 억

제44항 성명밖의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 쓴다.

보기 세종국민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한국은행 부산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삼국사기 김유신전
국립천문대 항성천문연구실

제5절 전문용어 및 한 낱말처럼 된 말

제45항 다음과 같은 전문용어는 붙여 쓴다.

보기

둥근잎나팔꽃	연지머리딱따구리
무조건반사	자기온도계
관상동맥경화증	탄소동화작용
방사성동위원소	아황산나트륨
이원이차방정식	지구중심설
대륙성기후	예술적사실주의
삼중협주곡	교향관현악단
만국음성기호	목청울림소리
논리적실증주의	변증법적신학
민족자결주의	
배당준비적립금	외국환시장
장물취득죄	무한책임사원
높이뛰기	이어달리기
줏거리탄도유도탄	
봉산탈춤	양주산디놀이

가미십전대보탕　　우황청심환

제46항 둘 이상의 말이 어울려 한 낱말로 굳어진것이나, 서로 대립의 뜻을 가진 말이 어울리어 한 낱말처럼 쓰이는것은 붙여 쓴다.

1. 둘 이상의 말이 어울려 한 낱말로 굳어진것

보 기 남의집살이　뜬소문　사사건건　오십보백보
요사이　이다음　어느새
기나긴　머나먼
끝이끝대로　난데없이　두고두고　두말없이
마지못해　번개같이　쏜살같이　쥐죽은듯이
하다못해　한결같이　할수없이
얽히고설키다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쓰디쓰다　차디차다
국민학교　고등학교

2. 서로 대립적인 뜻을 가진 말이 어울려 한 낱말처럼 쓰이는것

보 기 본숭만숭　본체만체　먹은둥만둥　울동말동
들락날락　붐으락푸르락　엎치락뒤치락　들썩날썩
가나오나　자나깨나　이러니저러니　권커니잣거니
이렇다저렇다　왔다갔다　이렇든저렇든　이러쿵저러쿵
이리저리　가로세로

제6절 수

제47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 억, 조, ……' 단위로 띄어 쓰고, 숫자에 한글을 달아쓸 때에는 '만, 억, 조, ……' 만을 쓴다.

보 기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일
12억 3456만 7891

다만, 금액을 적을 때에는 모두 붙여 쓸수 있다.

보 기 오만육천칠백팔십구원정

부 록

제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히'로만 나는것은 '히'로 적고, '이'로만 나는것은 '이'로 적으며, '히'와 '이'로 혼동되는것은 그 말의 어근에 '하다'가 붙는것은 '히'로 적고, 그렇지 않은것은 '이'로 적는다.

1. '히'로만 나는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착히　특히

2. '이'로만 나는것

더욱이　일찍이　가붓이　가뿟이　깨끗이
갸웃이　거붓이　건성드뭇이　고붓이　구붓이
나붓이　느긋이　따뜻이　둥긋이　반듯이
방긋이　빵긋이　버젓이　뻐젓이　벙긋이
빵긋이　보듯이　뽀뜻이　부듯이　뿌듯이
산뜻이　생긋이　쌩긋이　수긋이　싱긋이
아렴풋이　어렴풋이　어연번듯이　우긋이　의젓이
이상야릇이　짜긋이　지긋이　찌긋이

3. '이', '히'로 나는것

(1) '하다'가 붙는것

꼼꼼히　나른히　각별히　간소히　간편히
공명히　과감히　능히　묘연히　무단히
분명히　상당히　소홀히　심히　정결히
그득히　그윽히　기특히　깊숙히　끔찍히
똑똑히　벌쭉히　불룩히　빡빡히　삐죽히
솔직히　수북히　엄격히　답답히　섭섭히

(2)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것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사사로이　기어이　번번이(여러번 다)　일일이
일제이　헛되이

제2항 한자말에서 본디소리로도 나고 익은소리로도 나는것은 각각 그 소리대로 적는다.

보 기	본디소리로 나는것	익은소리로 나는것
	승낙(承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분노(忿怒)	대로(大怒)
	안녕(安寧)	회령(會寧)
	장닉(藏匿)	은익(隱匿)
	비련(悲戀)	연연불망(戀戀不忘)
	토론(討論)	의논(議論)
	연루(連累)	누누(累累)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구릉(丘陵)	태능, 홍능, 강능(康陵)
	십일(十日)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3항 다음과 같은 말은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보 기	ㄱ	ㄴ
	-리만큼(하리만큼)	-르이만큼(할이만큼)

-느니만큼(보느니만큼)	-는이만큼(보는이만큼)
-느니보다(하느니보다)	-는이보다(하는이보다)
-는지(갈는지모른다)	-른지(갈른지 모른다)
부리나케	불이나케

제4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ㄹ가?	-ㄹ까?
-ㄹ고?	-ㄹ꼬?
-ㄹ거나	-ㄹ꺼나
-ㄹ걸	-ㄹ껄
-ㄹ게	-ㄹ께
-ㄹ세	-ㄹ쎄
-ㄹ세라	-ㄹ쎄라
-ㄹ수록	-ㄹ쑤록
-ㄹ시	-ㄹ씨
-ㄹ지	-ㄹ찌
-ㄹ지니라	-ㄹ찌니라
-ㄹ지라도	-ㄹ찌라도
-ㄹ지어다	-ㄹ찌어다
-ㄹ지언정	-ㄹ찌언정
-ㄹ진대	-ㄹ찐대
-ㄹ진저	-ㄹ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보 기 -ㅂ니까?
-리까?

제5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지게꾼	지겟군
장난꾼	장난군
익살꾼	익살군
심부름꾼	심부름군
장꾼	장군
때깔	땟갈
태깔	탯갈

성깔	성갈
빛깔	빛갈
귀때기	귓대기
판자때기	판잣대기
볼때기	볼대기
뒤꿈치	뒷굼치
발꿈치	발굼치
팔꿈치	팔굼치
이마빼기	이맛배기
코빼기	콧배기
겸연쩍다	겸연적다
객쩍다	객적다

제6항 종래에 두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가지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치다. 멀리 뻗치다.)	뻐치다
줄이다(마음을 줄이다. 생선을 줄이다.)	조리다

제7항 '-더라, -던'과 '-든지'는 아래와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도로 생각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되던지 몰라?	얼마나 되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보 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8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보 기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가름 둘로 가름

걷잡다 걷잡을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잡아서 이를 걸릴 일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히다.
거치다 대전을 거쳐 왔다.

걸음 빠른 걸음
거름 풀을 썩인 거름

그럼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그는 남을 위해 일한다. 그럼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산다.)

놀음 즐거운 놀음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리다 방을 더 늘리다.

닫치다 거센 바람이 문을 닫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이다 약을 달이다.
다리다 옷을 다리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다 맞히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치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반듯이 모자는 반듯이 쓰고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가다.
받히다 소에게 받히다.
바치다 아버지께 성적표를 바치다.
밭치다 체에 밭치다.

벌이다 윷놀이를 벌이다.
버리다 휴지를 버리다.
벌리다 입을 벌리다.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히다.
시키다 일을 시키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히다.
안치다 밥을 안치다.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아름 세아름 되는 물레

얼음 얼음이 녹은 물
어름 경계선 어름에서 일어난 사건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이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

줄이다 비용을 줄이다.
주리다 여러 날 주리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것이 이 꼴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붙이다 ('붙다'라는 기본형이 쓰이는 말)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삼촌집에 몸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감시원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바둑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부치다 ('붙다'라는 기본형이 쓰이지 않는 말)
힘이 부치는 일이다.
부채를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러 ('가다, 오다, 다니다'의 앞에서 쓰인다.)
공부하러 간다.
너 보러 왔다.
일자리 얻으러 다닌다.

-려 ('하다, 들다'의 앞에서 쓰인다.)
서울 가려 한다.
무엇이나 먹으려 든다.

로서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낸다.)
사람으로서 그럴수는 없어.
학생으로서는 못할 짓이다.

로써 ('을 가지고'의 뜻을 나타낸다.)
대패로써 나무를 밀었다.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제9항 성명의 한글 표시는 이 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의 음절 범위 안에서 예외를 허용한다.